

Contents

July 2006 7월 1일 발행 / 100페이지 / 1000원

- 02 - 축산단신
- 04 - 기획특집
뉴질랜드의 쇠고기이력추적제도 소개
- 06 - 전문가심층정보
한·미 FTA가 미치는 영향 및
국내 축산업경쟁력 제고방안
- 08 - 소·등급관점우수농가탐방
'동우농장' 김명래 농가
- 09 - 돼지·등급관점우수농가탐방
'고화농장' 한석봉 농가
- 10 - 축산 식육상식
가축공제 이렇게 달라진다
- 11 - 등급관점업무 Q&A
축산물등급관점업무에 대한 궁금증 풀기
- 12 - 소·돼지가격전망
- 13 - 소·돼지산지 및 도매시장가격동향
- 14 - 등급관점통계자료
6월중 축산물등급관점 정 결과
- 19 - 등급관점소식



표지사진 '갈매기의 꿈'
사업관리팀장 신승구 작

해양경찰청은
해경, 해양배출 단속
'수위조절' 할 듯

해양경찰청은
지난 6월 21일 해
양경찰청 대회의
실에서 '해양배출
가축분뇨 이물질
제거대책' 회의를 갖고 이물질 점검
에 대한 농가 불만 사항을 수렴하고
해양배출 단속에 수위를 조절 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해경은 해양배출 가축분뇨 단속에
대해 이미 주어진 단속규정에 따라
실시하되 농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고 탄력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
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양돈농가
들은 고액분리기 설치로 해양배출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며 분뇨 저장시
설 등이 함께 운영되기 위해서는 시
간과 돈이 더 필요한 만큼 단속을 더
유예하거나 사육규모별로 달리 적용
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한 번의 단
속보다는 삼진 아웃제 등을 실시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농림부가 자연
자순환 농업
확산을 위한
퇴·액비 시범
포 사업 본격
착수

농림부가 자연
순환농업 추진 대
책의 일환으로
퇴·액비에 대한
경종농가의 인식전
환 및 이용 확대를 위해 전국 50개 소
의 퇴·액비 시범포를 운영한다고

이달의 이슈 - 식중독(食中毒)

식중독이란 : 식중독은 일종의 임상중후군으로서 오염된 음식을 먹은 후 또는 음식
그 자체의 독성 때문에 발병하는 질병이다.

식중독 발병 원인 : 식중독은 치명적인 것도 있으나 대개 증상이 경미한 것이 보통
이며 전파성도 그리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원인은 세균성 또는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것이 가장 많고 화학물질, 독성을 가진 음식물 및 알레르기에 의한 것도 적지
 않다.

식중독의 증상 : 식중독의 증세로는 구토, 설사, 복통, 발열, 식은땀과 혈압하강 등
 이 있는데, 이때 설사를 멈추는 지사제를 함부로 사용하면 증상과 예후를 더욱 나
쁘게 할 수 있다.

식중독 치료 : 식중독의 치료로는 설사에 의한 탈수를 교정하기 위해 경구적으로나
정맥주사를 통해서 수분 공급을 충분히 공급해 주고 보편적 치료방법을 사용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증상이 호전된다. 항구토제는 투여는 안 되며, 염증성 설사에서
는 지사제는 피해야 한다. 음식 매개성 질환의 관리는 질병의 대부분이 자연 치유
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비특이적이고 보조적인 치료 방법을 사용한다. 대부
분의 세균성 위장염은 항생제 요법을 사용해도 임상적인 경과가 줄어들지는 않는
다. 그리고 결코 이들 질환으로 인해 심각한 이환 또는 사망을 초래하지 않는다.
단지 고위험군의 환자나 Botulism, 기생충 감염, 침윤성 세균 질병에 대해서만 특
별 치료를 한다.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가축분뇨로 생산한 퇴·액비를 친환경농업 자원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 퇴·액비 사용시 농산물 수확량 및 품질, 소득개선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경종농가에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농림부는 이번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범포 운영지침에 따른 토양분석, 재배성적 조사, 경제성 평가 등을 실시토록 하고 연찬회 개최에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개소당 30만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중국,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결정
중국이 지난 6월 29일부터 30개월령이하 뼈 없는 쇠고기에 한정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한다고 6월 30일 중국 농업부 웹사이트를 통해 공식 발표했다. 농업부 발표에 따르면 수입이 허용된 품목은 생후 30개월 이하의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 중 뼈를 제거한 살코기 부위로 한정했으며 머리와 척추 뼈 등은 수입 대상에서 제외됐다.

식중독=고기 "아니다"
서울, 경기, 인천지역 중·고교에서 발생한 사상 최대의 급식사고의 원인균이 노로 바이러스(Noro virus)라는 잠정 조사결과가 나왔다. 노로 바이러스는 육류에서 거의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급식사고를 야기한 음식은 알려진 것과 달리 돼지고기가 아니라

샐러드와 어패류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6월 20일과 21일 각각 서울 동작구 송의여중·고와 강서구 경복여중에서 집단 급식 후 식중독을 보인 학생 200여명의 대변을 수거해 10개 그룹으로 나눠 22일 조사를 벌인 결과 10개 그룹에서 9개 그룹에서 노로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일본의 미산쇠고기 수입재개 시점이 올 8월 중순 이후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Cattle Buyers Weekly에 따르면 일본으로의 쇠고기 수출작업장 35곳에 대한 일본 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따라 미산쇠고기 수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기타 세부 사항들의 검토기간을 감안하면 예상보다 몇 주가 더 소요될 수 있다.

WHO, 올 겨울 AI 다시 기승부릴 듯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6월 30일 발표한 주간역학보고서에서 지난 2003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확인된 인간 감염 사례 205건을 분석한 결과, 모두 3차례의 절정기가 있었으며 모두가 북반구의 겨울에서 봄 사이에 걸쳐 있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런 패턴이 지속된다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사이 AI

인간 감염 사례가 집중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WHO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AI를 유발하는 H5N1 바이러스가 광범위한 지역의 가금류에 분포돼 있고 인간의 노출도 지속되고 있어 번이의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고 지적했다.

농림부는 소 부루세라병 방역보완 대책 강화
농림부는 소 부루세라병 방역보완 대책에 따라 7월 15일부터 부루세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를 가축시장·농가에서 문전거래 되는 모든 한우우암소(암송아지 포함)와 10두 이상 사육하는 한우우 사육농장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행 30~60일 간격으로 2회 재검사(2~3개월) 후 이동제한이 해제 됐는데, 60일 간격으로 3회 재검사(6개월) 후 이동제한 해제된다. 이동제한 중 발생농장의 동거 소도 도축장 출입이 금지된다. 살처분 보상방식도 현행 당해 가축시세의 100%를 지급했으나 오는 11월 1일부터 80%, 2007년 4월 1일부터는 60%로 낮아지며 7월 15일부터 보상금 평가시 저율 계근을 의무화 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검사명령·소독·신고 등 방역규정 위반시 보상금은 추가 감액할 방침이다.

해당가축이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증명서를 휴대하지 않으면 가축의 소유자 또는 가축운송업자에 대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과태료가 부과된다.